

韓國 工業立地の 展開過程(I)

—方法論・植民地的 工業化—

邢 基 柱

〈目 次〉

1. 序 章	(1) 植民地 經濟關係의 變遷
(1) 研究目的	(2) 産業構造의 推移
(2) 地理學에 있어서 時間的 次元	(3) 工業의 成長과 業種構造의 推移
(3) 分析手段	(4) 小 結
2. 植民地的 工業立地 展開過程의 前提	

1. 序 章

(1) 研究目的

解放以後 30여년의 歲月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工業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年代後半 이후 약 10여년의 짧은 歲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에 年平均 9.9%의 經濟成長을 持續하여 왔고, 그 成長을 主導한 부문이 내용이야 여하간에 工業部門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짧은 歲月에 얻은 이같은 높은 成長의 他面에는 工業一邊到의 開發이 産業間 所得의 隔差를 벌려 놓으므로써 地域間 所得의 不均衡과 이에 따른 각종 地域問題를 낳고 있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과연 解放이후 우리의 工業이 어찌하여 長歲月의 停滯期를 거쳐야 했을까, 그리고 최근 10여년간의 급속한 成長이 地域間 所得의 不均衡을 더욱 加重케한 근본적 要因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이 可能할 것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日帝時代의 先行時代性을 克服하지 못한 工業地域構造의 跛行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령 韓半島 南北의 産業構造가 이미 日帝 植民地 經營의 所産인 것처럼, 「首都서울과 地方과의 隔差」 혹은 「韓半島 各地의 差別的 成長」에 있어서도 이미 日帝 植民地 經營에서부터 그 土壤이 마련되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이같은 假定을 토대로 日帝 36년간의 韓半島 工業이 地域的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즉, 日本의 侵略이 시작되면서 韓半島의 工業立地構造¹⁾가 어떻게 變容되어 왔으며, 이같은 立地構造의 變容·變質에 작용한 要因이 무엇인지를 追跡하므로써 的의로 整然하게 존재하는 地理的 秩序 내지 地域의 動態過程을 類型化하려는 데에 연구의 큰 뜻이 있는 것이다. 마치 文化現象의 變革·擴散처럼 工業自體를 어떤 水準의 技術로 간주한다면 그 立地는 時間에 따라서 아메바의 分裂처럼 혹은 傳染病의 蔓延처럼 整然한 變化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언어지는 類型이란 植民地 經濟라는 特殊與件이 작용한 것이므로 筆者는 이것을 工業立地 一般의 動態類型이나 工業의 擴散類型

1) 筆者는, 地域構造·空間構造·立地構造가 本質的으로 相異한 의미를 갖는 用語이지만 반드시 區別하여 사용치 않았다.

으로 삼고 싶진 않다. 다만 筆者가 크게 着眼한 點은, ① 어떠한 經濟體制가 되었던 간에 工業立地의 成立과 變動은 「地域側의 條件과 政策方向과의 妥協의 結果」라는 點, ② 工業現象의 時間的, 地域的 變容의 類型에 대한 結果가 現下 韓國의 工業立地構造를 解明함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側面을 占할 수 있다는 點이다.

筆者는 이미 수년전에 大邱市를 對象으로 한 都市工業의 立地展開 過程을 論文으로 발표한 바 있다.²⁾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都市를 단위로 한 局地的 工業이 國民經濟의 構造的 變化에 따라 生態的으로 地域에 對應하여 가는 몇 개의 段階를 示意한 것이다. 今次的 研究에는 이같은 根本的 視點을 national level로 확대시켜 파악하므로써 특히 植民地의 經濟關係 및 그 構造的 變化가 어떻게 地域에 投影되었으며, 그 投影상태가 어떤 段階로 變容되었느냐에 焦點을 맞추어 보았다. 前次的 研究과 今次的 研究 間에는 對象地域 level이 다르고 追求方法에 있어서도 今次的 그것은 文化現象의 變革·擴散理論을 참작한 點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時間的 橫斷面을 일단 完結된 機能的 結合이나 均衡平面으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國民經濟(或은 植民地 經濟)의 成立과 發展에 對應하여 各個의 異質的 立地가 서로 依存·對立關係를 견지하면서 變動되어 가는 全體的 모습을 類型化하려는 點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또한 前次的 研究나 今次的 研究에서 처럼 서로 다른 level의 地域研究를 結合함으로써 空間秩序의 올바른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思料된다.

日帝時代의 韓國工業經濟에 관한 研究는 이미 官房的 性格을 띤 日本人들의 研究³⁾를 筆頭로 해서 解放後에 있어서도 經濟史의 일부 내지 產業經濟學의 一環으로 다룬 수많은 研究成果가 나와 있다.⁴⁾ 그러나 이같은 많은 先學의 業績에도 불구하고 日帝時代의 工業을 地域的으로 接近한 成果는 거의 없고, 특히 解放後에 發表된 研究의 內容은 그 大部分이 「植民地工業의 搾取狀」 내지 「民族工業의 萎縮狀」 등에 焦點을 두어 全國 level에서 概觀함에 일관하고 있을 뿐 地域構造나 空間關係의 次元에서 接近을 시도한 연구는 全無하다. 여기에는 日帝時代의 小單位 地域別·年次別 統計나 企業體名鑑 등을 쉽사리 入手할 수 없는 理由가 介在하고는 있으나, 이같은 資料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데 日帝下 韓國工業의 具體相은 영구히 미궁에 빠질 뿐 아니라 植民地經濟의 本質마저도 歪曲 解明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것은 解放後 韓國의 工業立地構造의 本質을 歪曲 判斷할 위험에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筆者가 本論文에서 노리는 副次的 目標은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日帝時代 工業의 地域別 資料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에도 있다.

(2) 地理學에 있어서 時間的 次元

本 研究를 推進함에 앞서서 우리가 서야할 바른 位置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 넓은 의미에서는 一般地理學에 있어서 우리가 서야할

- 2) 邢基桂, 1969, “工業立地의 動向, 大邱市 工業立地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生産技術 第3輯, 慶北大學校 生産技術研究所 pp. 1~74.
- 3) 鈴木武雄, 1942, 朝鮮의 經濟, 日本評論社, 321 pp.
川合彰武, 1943, 朝鮮工業의 現段階, 東洋經濟新報, 384 pp.
朝鮮工業協會, 1933, 朝鮮에 於ける 大工業의 現在及 將來, 120 pp.
———, 1937, 朝鮮의 工業とその 資源, 271pp.
朝鮮殖産銀行調查課, 1934, 朝鮮에 於ける 工業會社의 資本構成調查, 84 pp.
- 4) 全錫淡, 1949, 朝鮮經濟史, 博文出版社, 319pp.
全錫淡, 李基洙, 金漢周, 1947,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 287 pp.
權泰燮, 1947,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同心社, 242 pp.
李北滿, 1948, 李朝社會經濟史研究, 大成出版社, 388 pp.
崔虎鎭, 1962, 韓國經濟史概論, 普文閣, 476pp.
黃炳喆, 1966, 韓國의 工業經濟, 亞細亞問題研究所, 466 pp.
趙璣瀟, 1973,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亞細亞問題研究所, 540 pp.
金文植, 韓昌浩 外, 1971, 日帝下의 經濟侵奪史, 亞細亞問題研究所, 677 pp.
山田三郎 編, 1971, 韓國工業化의 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422 pp.
九州經濟調查協會, 1967, 韓國의 工業, アジア經濟研究所, 133 pp.

位置, 좁은 意味에서는 一般地理學의 한 分科인 經濟地理學 내지 工業地理學에 있어서 우리가 서야할 位置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工業現象을 經濟地理學的 觀點에서 취급하여 온 성과는 우선 工業現象 자체가 매우 복잡한 技術領域일 뿐 아니라 技術變革의 速度가 매우 급속한 탓으로 經濟立地論의 領域을 제외하면 상금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戰後의 地理學 내지 經濟地理學이 科學으로서의 方法論의 反省期에 처하고 있는 過渡의 彷徨에도 한 원인이 있고, 특히 韓國의 경우에는 工業統計의 體系的 整備가 未洽한 것에 이 部門의 後進성을 극복치 못한 다른 또하나의 원인이 있다. 戰後에 있어서 工業現象을 經濟地理學的으로 다룬 테마를 類別하면 E. W. Miller⁵⁾가 이미 시사한 것처럼, ① 單一工業 내지 複合工業에 대한 現象이나 問題點을 主題로 하되 몇 개의 地域에 걸친 關聯성에 重點을 두는 方向, ② 單一地域을 主題로 하되 industrial complex 내지 產業間의 關聯성에 重點을 두는 方向, ③ 特定產業에 影響을 미치는 特定立地要因을 主題로 하는 方向, ④ 個別企業을 主題로 하되 이것이 地域社會에 미치는 影響과 地域社會 自體가 個別企業에 미치는 影響을 中점적으로 다루는 方向, ⑤ 潛在的 工業地域의 選定에 重點을 두는 方向이 있다. 이에 대해서 戰前·戰後 日本에 있어서 工業地理 研究主題를 보면, ① 全國的 工業分布의 研究, ② 工業部門別 全國的 工業立地の 研究, ③ 在來工業地域의 研究, ④ 複合的 工業地域의 研究로 분류된다.⁶⁾ 이 밖에 筆者는 研究對象에 따른 分類⁷⁾와 研究方法에 따를 分類⁸⁾를 數年前에 예시한 바 있다. 여하한 類의 研究가 되었건 간에 筆者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① 「어떻게 現實을 올바르게 설명할 것이냐」 ② 「現實空間을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할 수는 없느냐」에 있다.

1950年代 이후, 이 두가지 문제는 대체로 一般地理學 方法論의 테두리에서 소위 理論地理學과 傳統地理學 간의 爭點이 되고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에게 주목을 이끌게 하는 것은 地理學에 있어서 時間의 克服에 관한 爭點이다. 地理學이 본래부터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地域이나 空間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유크리트空間이나 位相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소위 四次元의 空間을 대상으로 한다. K. Dziewonski는 立地の 經驗的分析과 理論定立에 있어서 socio-economic space를 socio-economic time space로 看做하면서 “우리는 立地分析을 立地決定이나 立地選定の 問題, 즉 時間의 유일한 橫切面만 限定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一定地點의 立地利益을 계속적인 時間의 次元에서 論해야 된다”⁹⁾고 主唱한다. 社會經濟的 空間은 계속 변동하고 있으며, 본래부터 존재하였던 因子의 變質이나 새로운 因子의 登場에 따라 波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고하면 W. Christaller의 正六角形 system 자체도 그가 자인한것 처럼 하나의 靜態論에 불과하다. “人口分布의 疎密을 불문하고, 그같은 安定狀態는 단지 瞬間의 高찰에 불과하며, 그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瞬間的인 認識에서 끝난다. 安定狀態는 틀림없이 하나의 픽션이며, 반대로 事實은 運動이다. 中心地의 意義에 작용하는 各要素는 領域이건, 人口이건, 中心的財의 需給이건, 物價·交通關係·中心地 規模이건 간에 계속적인 變化를 일으킨다”¹⁰⁾고 W. Christaller는 動態過程의 一面을 해설하고 있으나, 그의 南部獨逸 연구의 對반은 역시 ‘瞬間의 考察’을 벗어난 것이 못된다. 日本의 水津教授는 W. Christaller에 의한 ‘需給原理’의 규칙적인 結構 system을 歷史적으로 추적함으로써 地域의

5) Miller, E. W., 1962, *A Geography of Manufacturing*, Prentice-Hall, pp. 2~3.

6) 風卷義孝, 1958, “日本工業地域の形成”, 地評 31~1, p. 2.

7) 邢基柱, 1965,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과 需要因子에 관한 立地の 動向”, 慶大論文集, 第9輯(自然科學篇), p. 65.

8) 邢基柱, 1968, 前掲書, pp. 1~2.

9) Dziewonski, K., 1965, *A New Approach to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Locations*, R.S.A., Papers 16, Cracow Congress, p. 18.

10) Christaller, W., 1933, *Die zentralen Orte in Suddeuschland*, Jena (江澤讓爾 譯本), p. 105.

動態의 model¹¹⁾을 작제했으며, macro 構造로 본 地域進化의 system¹²⁾을 model로 만들고 있는데 筆者가 시도한 前次의 研究¹³⁾나 今次의 研究는 바로 이같은 思念과 통하는 것이다.

地理學에 있어서 '時間克服'의 문제는 이미 O. Schlüter의 景觀形態學에서 主要 論點으로 등장한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個性追求의 地理學에 어떤 類의 法則科學의 側面을 定立하려 노력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時間克服'이란 구체적으로는 景觀에 있어서 '反復現象'을 抽出하는 것이었다. "地理學的 考察方法은 그 理念에 따를 때 無時間이다"¹⁴⁾고 하면서도 그가 말하는 無時間性이란 地理學에 있어서 時間性(歷史性)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¹⁵⁾ 그는 "反復現象이야 말로 存在와 生成을 結合하는 것이며, 歷史의 事件에서 變化가 서서한 것, 일관적인 것, 比較的·基本的인 것을 찾아 고찰해야한다"¹⁶⁾고云云하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人文現象 중에서 비교적 永續的인 것을 구하므로서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 수단을 얻을 수 있다"¹⁷⁾고 하였다. 결국, 歷史=反復=永續=永遠한 存在=無時間의 論理로서 一般性이 강한 事件을 優生的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었다. A. Hettner는 E. Kant의 時間認識과 空間認識에 대한 풀이를 그대로 地理學에 도입하므로서 歷史學과 地理學的 擬似的 同一性을 定立한 셈이다. 따라서 그는 "地理學은 一定時의 斷面을 現實을 통해서 취급하며, 時間的 發展은 그 時代面의 상태를 認知하는데에 머물 뿐이다. ……그 發生은 必要하지만 歷史로부터 터득하려는 것은 아니다"¹⁸⁾고論하므로서 結局, 그는 地理學的 對象을 一定 時間斷面으로 묶는 한편 認識의 方法에 있어서는

發生論의 追求를 排除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A. Hettner의 思念이 오랜동안 地理學的 전통으로 固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A. Hettner 流의 地理學方法을 例外主義라고 非難하는 F. K. Schaefer는 地理學에서 時間性을 극력히 배제하고 morphological law를 정립코자 시도한 戰後 최초의 地理學者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A. Hettner나 R. Hartshorn이 추구하는 이른바 固有한 事象(uniqueness)에는 法則이 없으며 歷史的이고 地理的인 法則이나 豫見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의 활용할 수 없다는 것¹⁹⁾, A. Hettner의 發生論的 追求方式은 19世紀의 反科學的 歷史主義의 遺産이며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²⁰⁾ 그리고 地理學은 本質的으로 morphology이며 순수한 地理的 法則이란 時間이나 變化와는 無關하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가 연구하는 空間構造가 process의 結果임을 부정함이 아니고 地理學者의 대부분은 그가 발견한 이미 조성된 process를 취급한다²¹⁾고 주장한다. F. K. Schaefer는 地理的 法則의 발견과 法則의 활용을 재촉하는 나머지 時間次元을 배제하고 地理學=形態學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탐구하는 空間構造란 process의 結果임에는 틀림없으나 동시에 그것 자체가 process이며, 따라서 現實空間은 遲速의 差異는 있으나 잠시도 靜止狀態에 있을 수 없는 空間이다. 또한 空間構造의 파악은 그것이 현저하게 變換 상태에 있을 때 그에 작용한 要因을 올바르게 解明할 수 있는 것이며, 特히 工業立地構造에 있어서는 "工業이 이동할 때, 영향력이 있는 立地因자가 가장 명백히 지적되는 것이다."²²⁾ 이렇게 보면 地理學에 있어서 空間이란 時間的

11) 水津一郎, 1966, 社會集團의 生活空間, 大明堂, pp. 320~336.

12) *ibid*, pp. 425~430.

13) 邢基柱, 1968, 前掲論文.

14) Schlüter, O., 1906, *Die Ziele der Geographie des Menschen*(綿貫勇彥, 地理學方法論, 1935 地人書館) p. 34.

15) 이에 대해서는 從來 日本學者들이 Schlüter의 根本理念을 誤解하고 있었다. 水津一郎 前掲書 pp. 392~393 참조.

16) 綿貫勇彥, 1935, 地理學方法論, 地人書館, pp. 34~35.

17) *ibid*, pp. 35~36.

18) *ibid*, p. 80.

19) Schaefer, F. K.,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A. A. G.*, Vol. 43. p. 236.

20) *ibid*, p. 239.

21) *ibid*, p. 244.

22) Schumacher, H., 1933, "Location of industry," i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9, MacMillan, New York, p. 586.

空間으로 이해하여야 옳다. 과연 F. K. Schaefer와 유사한着想을 가진 W. Bunge는地理的空間을位相이나유클리드空間으로취급하고있다. 그는傳播論을취급함에있어서, “移動의type이여하간에移動은그痕蹟을남긴다.……Davis의河川은地球의物質을바다로운반하고地表에侵蝕谷을남긴다”²³⁾云云하면서地理學을點의問題, 面의問題, 中心地問題²⁴⁾등으로分類할것을주장하고있다. 地理學을數學·幾何學的共通言語를통해서法則化하고, 되도록이면 “많이상상하고보다적게反復한다”²⁵⁾는이유때문이다. 그래서Davis의河川은어떤營力을통해서어떤과정으로흘렀건侵蝕谷의morphological law만추구하면된다는것인가, 우리는처음에前提한것처럼어떻게해서現實空間을올바르게說明할것이냐가문제이다. 때문에現實空間이靜止狀態에있지않는限그것의追求는發生論的追求는물론이고動態的模型을통해서설명되어야한다. 假使地理學的該心的課題를幾何學的空間法則의추구에둔다하더라도 “地理學者들이幾何學的特徵의原因을설명하기를願하고, 또이原因을process를설명하는他的法則에연결하고자願하는限幾何學的空間法則은地理的문제를만족스럽게답할수는없다.”²⁶⁾

地理學의어떤분야가되었건간에接近方法에있어서전통적으로爭點이되고있었던것은形態, 發生, 地誌의세가지側面이었다.²⁷⁾ 最近에J. Eichenbaum과S. Gale은이세가지側面을form, function, process의問題로定立하고 “地理學方法論의 훌륭한 취급은 실로 이 세가지를 어떻게 規定·活用하느냐에 달려 있다”²⁸⁾

고 하면서 “process의哲學이地理學에導入된지는오래되지만, ……이것이명백한科學的觀點으로는어느程度늦게이르렀을뿐아니라1920~1955년간美國地理學을특징지우는바他科學과의接觸이극히미미했던것은同概念의擴大普及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歷史主義者나Davis流의개념을제외한다면process哲學의形而上學的敎訓과관련된實際的研究는비교적적다”²⁹⁾고論한다. 우리는form, function, process를전부包含한만족스러운研究를아직發見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이미生物學은이세가지側面의綜合的認識에성공하고있음을주시해야한다. 將次우리에게부과된가장큰課題중의하나는地理學이어떠한方式으로時間的次元을受容할것이며, 이것을法則化할것이냐에있고, 筆者가本研究를수행하는기본적態度도바로이같은노력에있다.

(3) 分析手段

1) 先學의 여러 事例

工業現象이나經濟現象을time-space의立場에서추구한研究는비록그것이理論으로成熟·精鍊되지는않았으나몇가지事例를지적할수가있다. J. H. Thompson³⁰⁾은이른바循環論·分化成長論·機能變化論등의이름으로工業地域構造의概念化可能性을시사하고있으며, W. Zelinsky³¹⁾와V. R. Fuchs³²⁾는센서스資料를활용하여美國에있어서工業立地의相對的變動을규명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때W. Zelinsky는V. P. factor(附加價値와人口)혹은E. P. factor(雇傭과人口)의數年間相對的成

23) Bunge, W., 1965, *Theoretical Geography* (西村嘉助譯, 大明堂), p. 217.

24) *ibid*, pp. 218~219.

25) *ibid*, p. 8.

26) Sack, R. D., 1972, “Geography, geometry, and explanation,” *A.A.A.G.*, Vol. 62, pp. 61~78.

27) 野間三郎, 1963, 近代地理學의潮流, 大明堂, pp. 164~179.

28) Eichenbaum, J. and, Gale, S., 1971, “Form, function and process,” *Econ. Geogr.*, Vol. 47, p. 525.

29) *ibid*, pp. 532~533.

30) Thompson, J. H., 1966,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manufacturing geography,” *Econ. Geogr.*, Vol. 42, p. 357.

31) Zelinsky, W., 1958, “A method for measuring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ty: United States, 1939~1947,” *Econ. Geogr.*, 34, pp. 95~126.

32) Fuchs, V. R., 1963, *Changes i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 the U. S. since 1929*, Yale University Press, 566 pp.

長을 地域別로 算出하여 工業의 地域間·都市間 移動을 分析한 것이며, V. R. Fuchs는 1929年에서 1954年까지의 美國 各洲別 工業의 相對的 成長을 그의 獨特한 算式으로 分析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으로는 變動속에서 工業의 相對的 構造를 판단한 점이다. 한편 鐵鋼工業이나 綿工業과 같은 特定業種의 地域的 變動을 분석한 研究³³⁾³⁴⁾, 또는 한 都市地域을 대상으로 工業의 集中·分散過程에 중점을 둔 研究³⁵⁾³⁶⁾, 그리고 몇 개의 都市가 포함되는 地域單位를 대상으로 하여 工業地域이 形成·變質되어가는 過程을 분석한 研究³⁷⁾등을 列擧할 수 있는데, 이들 研究의 한결 같은 特徵은 立地條件이나 立地因子의 變化에 따른 工業地域 變容過程을 기술한 점이다.

前記의 諸 研究는 J. H. Thompson의 그것을 제외하면 工業地域構造에 있어서 일련의 動態模型을 만들거나 혹은 動態模型을 통해서 地域을 설명하려는 研究는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J. O. Wheeler의 Michigan州를 대상으로한 研究³⁸⁾는 매우 觀心을 불러 일으키는 研究인데, 그는 1840年에서 1963年까지의 長期間의 工業을 대상으로 하여 工業雇傭率의 變動, 雇傭 中心點의 移動을 확인하는 한편 運送手段의 技術的 變化에 따른 工業地域構造의 變動時期를 ① 工業의 국지적 指向時代, ② 分化成長時代, ③ 累積的 集積時代, ④ 都市化 分散時代로 나누고 있다. 이때 county別 工業集中率은 Lorenz 曲線을 援用하고 있는데, 方法論的 視點이나 分析手段은 筆者가 大邱市 工業에서 시도했던 研究나 대차가 없다. 그리고 日本의 工業地域을 對象으로한 幸田清喜³⁹⁾의 研究는 1920年에서 1950年에 걸친

市·郡別·規模別·業種別 工場數 構成의 推移를 類型化하여, 이른바 地域變容의 pattern과 變容의 遲速 등을 판단하고 있다. 매우 注目을 이끄는 研究이지만 지나치게 分類의 作業에만 중한 감이 있다. 이밖에 A. Pred⁴⁰⁾는 美國의 初期工業의 立地變動과 그 要因 및 都市地域과의 關係를 model로 표시했고, E. J. Taaffe⁴¹⁾와 R. L. Morrill은 工業立地의 變動을 輸送網과의 관계에서 model을 만들고 있다.

地理的 現象을 空間的 過程에서 파악하려는 가장 標本的인 試圖로는 1952年 C. O. Sauer의 「農業의 起源과 擴散」이 있고, 1953年 T. Hägerstrand가 發表한 「空間的 過程으로서의 變革擴散」이 있다. 양자는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文化現象의 空間的 擴散過程을 다루고 있지만 前者는 어디까지나 歷史·文化地理的 立場에서 전개했고, 後者는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計量過程으로 理論構成을 試圖한 것이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工業의 立地現象도 이같은 思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 단계의 工業立地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擴大·分散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류의 秩序가 확인된 다면 비슷한 現象을 여러 地域에서 經驗的으로 檢證할 價値가 있기 때문이다. T. Hägerstrand는 어디까지나 情報의 擴散이 變革의 擴散을 일으키고, 특히 個人的 情報의 擴散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注目하면서 simulation 結果와 現實을 對比하고 있다. 결국 그는 스웨덴 南部의 Kinda-Ydre 地方에서 實驗된 結果를 一般化할 수 있도록 妙한 手法을 개발한 셈이다. 이같은 T. Hägerstrand 流의 研究는 그후 여러 方面에

- 33) Alexandersson, G., 1961, "Changes in the location pattern of the Anglo American steel industry," *Econ. Geogr.*, 37, pp. 95~114.
- 34) 小原敬士, 1965, "近代資本主義的發展過程における地理的條件", 近代資本主義の地理學, 大明堂, pp. 47~271.
- 35) Reeder, L. G., "Industrial decentralization as a factor in rural-urban fringe development," *Land Economics*, Vol. 31, pp. 275~280.
- 36) Logan, M. I., "Manufacturing decentralization in the Sydney metropolitan area", *Econ. Geogr.*, Vol. 40, pp. 151~162.
- 37) 日本學者들에게는 이 같은 經濟地誌的 研究가 많다.
- 38) Wheeler, J. O., 1971, "Spatial changes in manufacturing, the Michigan examples," *Land Economics* Vol. 47, pp. 193~198.
- 39) 幸田清喜, 1958, "日本工業地域の形成", 地評, 31-1, pp. 8~14.
- 40) Pred, A., 1965, "Industrialization, initial advantage, and American metropolitan growth," *Geogr. Rev.*, Vol. 40-2, pp. 158~185.
- 41) Taaffe, E. J., Morrill, R.L., Gould, P.R., 1963, "Transport expans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Geogr. Rev.*, Vol. 53, pp. 503~529.

보급되어 B. J. L. Berry⁴²⁾는 都市의 階層構造와 비교되는 階層式 擴散過程을 연구했고, L. A. Brown⁴³⁾을 비롯한 數人의 共同研究에서는 Ohio 州에 있어서 cable T.V. 網의 多核型 擴散過程을 事例로 研究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研究가 理論體로서 完璧한 것이 되자면 檢證을 통해서 精鍊되어야 하므로 性急하게 移植하는 일은 매우 위험스러운 태도이다. 筆者가 接近하고자 하는 工場立地의 擴散過程은 T. Hägerstrand의 그것처럼 반듯이 個人的 情報의 擴散過程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確率的인 關聯性이 작용한 現象도 아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立地條件」 및 「植民地 政策」과 같은 特定性이 一次的으로 立地의 基本型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個人的 情報를 통해서 立地의 擴散이 이루어지는 소위 必然性과 偶然性의 合成 結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simulation을 통한 法則追求가 可能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性急하게 재촉할 뜻도 없다. 다만, 以上에서 例示한 몇몇 先學들의 思念을 참작하면서 韓半島의 工業立地가 어떤 模式으로 擴散했으며 이에 작용한 要因이 무엇인지를 明確히 하고, 이와 비슷한 事例가 여러 地域에서 경험적으로 檢證되기를 期待할 뿐이다.

2) 分析을 위한 基本 frame

地域構造란 매우 複雜한 事象의 結合體이므로 그것을 分析하는 唯一한 手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分析의 目的이나 對象·活用性에 따라 다른 方法이 採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分析法이 動員되어야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筆者는 本 研究에 있어서 分析을 위한 基本 frame을 그림과 같이 定立하고 몇 가지 側面의 상이한 分析手段을 動員하였다. 그것은 解放前 韓國의 工業이 植民地의 特殊與件에서 전개된 것이며 資料動員의 한계를 勘案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1과 같이 本 研究는 全國 level, 道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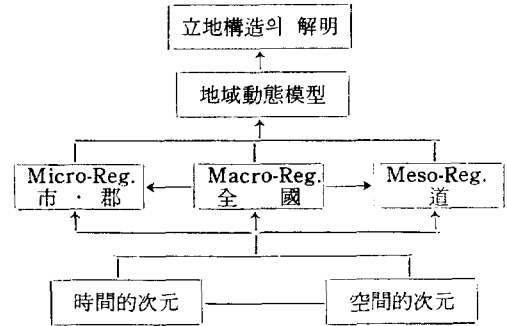


그림 1. 分析을 위한 frame.

level, 市郡單位 level의 세가지 側面에서 分析되며, 地域 level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分析手段이 採用된다. 全國 level의 분석에서는, 植民地의 經濟關係의 變遷과 이에 따른 產業構造 및 工業構造의 推移를 거시적으로 취급하는데, 이것은 全國의 產業構造의 變化가 各地域에 差別的으로 미치는 影響을 識別하는데에 標準尺度가 되기 때문이다. 道單位의 分析은 上記의 產業構造 變動에 따라 各地域이 對應하는 상태를 보는 것인데, 對應의 狀態는 그 敏感度가 成長의 遲速이나 業種構造에 反映될 것이며, 大體로 그 地域의 立地條件에 따라 對應의 敏感度에는 差異가 있다. 分析手法으로는 V.R. Fuchs가 活用한 相對的 成長率의 測定方法⁴⁴⁾을 그대로 活用했으며, 地標로는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收錄된 工產物 生産額을 택하였다. 道單位로 meso-region으로 선택한 이유는 ① 全國 level의 工業構造와 年別對比가 容易하고, ② 解放前만 하더라도 道別 地域性이 비교적 明確하여 工業의 地域性을 파악하기에 便利하며, ③ 工產物 生産額을 비롯한 工業統計는 道單位로 集計되어 있어서 이보다 작은 地域單位로 活用할 수 없기 때문이다. V.R. Fuchs의 前記 研究는 美國의 州單位 統計를 처리한 結果이다.

道單位 level의 分析에서 工業의 상대적 成長이나 產業構造의 變動에 따른 地域別 感應狀態를 파악한데 대해서, 市·郡單位 level의 분석

42) Berry, B.J.L., 1971, "Hierarchical diffusion: the basis of developmental filtering and spread in a system of growth centers," in N.M. Hansen (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Free Press, New York, pp.108~138.

43) Brown, L. A., Malecki, E. J., Gross, S. R., Shrestha, M. N., & Semple, R.K., 1974, "The diffusion of cable television in Ohio", *Econ. Geogr.*, 50~4, pp.285~299.

44) Fuchs, V. R., 1963, *op. cit.*, pp.30~43.

에서는 工業이 空間을 充填하여 가는 狀態 내지 擴散過程이 파악된다. 年度別 工場名簿를 利用하여 自然分布圖를 그린 다음에 統計의 mesh를 걸어서 처리하는 過程과 市·郡別 單位로 集計하여 業種別·年度別로 처리하는 過程으로 나뉘어 지는데, 行政區域은 數次에 걸친 改編이 있었으므로 時間에 따른 一律의 比較를 위해서는 一定時의 行政區域⁴⁵⁾으로 再編 統一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活用된 指標로는 工場名簿⁴⁶⁾에 수록된 從業員 級別 工場數를 擇하였는데, 解放前 小單位 地域別 資料로는 이것이 유일한 것일뿐 아니라 從業員 規模가 表示되어 있으므로 分布圖를 통한 工業空間의 形成過程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指標보다도 장점이 있다.⁴⁷⁾

從業員 級別은 從業員數 5~49人, 50~99人, 100~199人, 200人 이상으로 4級分하고, 이들 各各에 加重值를 부여하여 各級別 工場數로 곱하므로써 얻어지는 總點數를 해당地域의 假想雇傭數(number of hypothetical employee)로 보았다. 이것을 다시 最下位 從業員級(5~49人)의 加重值로 나누면 規模가 평가된 工場數가 되는데, 筆者는 이것을 假想工場數(number of hypothetical establishment)로 보았다. 이때 從業員數 規模를 4級分한 것은 편이와 慣例에 따른 것이며, 加重值에 의한 假想從員數와 實地從業員數 간의 統計的 檢證은 分析內容에서 記述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이렇게 해서 比較된 時期는 1915年, 1930年, 1940年の 3時點이다.

이상과 같이 本研究는 全國에서 道 單位→市·郡 單位 level로 下向式 分析過程을 擇하므로써

macro-region, meso-region과 같은 上位體系의 構造的 變化가 下位體系인 micro-region에 具體的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判斷할 수 있도록 조직된 것이다.

3) 時期區分과 資料

本研究는 合併以後부터 1945年 解放時까지를 カバー하는 研究이다. 그러나 太平洋戰爭 이후의 資料는 거의 活用할 수 없기 때문에 統計資料를 통한 分析 年限은 1940년이 下限이 된다. 日帝 36年の 經濟史的 時期區分은 日帝의 御用學者 鈴木武雄⁴⁸⁾를 비롯해서 여러 學者들의 구구한 見解⁴⁹⁾가 있으나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1910年 韓日合併에서부터 1919년까지를 植民地經濟의 第1段期라고 볼 수 있는데, 日本은 이 期間에 植民地 經營에 필요한 道路·港灣·鐵道·通信 등 外部經濟的 基盤造成을 위한 投資에 重點을 두었다. 1918년에 끝낸 「土地調査事業」은 資本의 本원적 축적이 強行된 이 時期의 代表的 事例이다. 植民地經濟의 第2段期는 1920年 統一關稅의 施行이나 產米增產計劃의 施行을 轉點으로 하여, 1930년까지로 잡는 見解와 1934년까지로 잡는 見解가 있다. 前者는 動力開發이나 1931年 滿洲事變을 한 다른 轉期로 볼려는 의도인 것 같고, 後者는 產米增產計劃이 1934년에 끝났으므로 1920~1934年을 완전히 한 기간으로 잡으려는 의도인 것 같다. 따라서 第3段期는 自然히 1931年 이후이거나 1935年 이후가 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기간은 日本이 韓半島를 大陸前進 兵站基地로 삼고 鑛工業 開發에 重點을 두던 時期인 것이다.

45) 1963年 현재의 區域

46) 朝鮮總督府 殖產局 編

47) 指標의 妥當性 與否 및 單一指標나 複數指標나에 관한 是非는 다음 論文을 參照할 것.

Alexander, J. W., 1961, "Measurements of manufacturing coefficient of correlation," *Jour. Regi. Science*, Vol. 3, pp. 71~81.

Morrison, J. L., & Scripser, M. W., 1968, "Basic measures of manufacturing in United States, 1958," *Econ. Geogr.*, 44~4, pp. 296~308.

Patni, R. L., 1968, "A new method for measuring locational changes in a manufacturing industry," *Econ. Geogr.*, 44, pp. 210~217.

48) 鈴木武雄, 1942, 朝鮮經濟의 新構想, 東洋經濟新報社, pp.8~35.

49) 邢基柱, 1968, 前掲書, pp. 11~12.

全錫淡, 1949, 朝鮮經濟史, 博文出版社, pp. 283~284.

權泰燮, 1947,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同心社, pp. 174~227.

趙璣璿, 1964, 韓國經濟史, pp. 280~290.

筆者는 本研究에 있어서 殖民地 經濟時代의 時期區分을 上記와 같은 견해에 따르되, 市, 郡 level의 分析에 관한 限 對比하는 年次는 1915년, 1930년, 1940년으로 잡았다. 그것은 이들 年次가 各時期를 보여주는 斷面에 해당하며, 1940년 이후의 資料는 活用不能이기 때문이다. 또한 1930년은 產米增產計劃의 施行結果가 工業에 充分히 反映된 때이며, 工業의 構造의 特質로 보아서는 1910~1930년의 20년간이 대차가 없음을 勘案하여, 第1段期の 中間인 1915년과 第2段期(產米增產計劃)의 反映時點에 該當하는 1930년이 선택된 것이다.

한편 本研究에서 가장 많이 活用된 資料는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와 同 殖產局 編纂의 工場名簿이다. 統計年報에 있어서는 1912년 이전과 이후 및 1931년 이전과 이후가 각각 編制가 다르기 때문에 再編輯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1912년 이전의 工業統計에 있어서는 從業員 10人以上의 原動力을 갖는 工場에 대한 集計인데 반해서 그 이후에는 1日 平均 5人以上의 從業員에 原動力을 所有하고 年間 生産額 5,000원 이상의 工場에 해당하는 集計이다. 단 이것이 工場生産額이고, 從業員 5人以下를 총망라한 工產品 生産額과 구별된다. 그런데 前者는 地域別, 業種別, 年度別 內容을 볼 수 없으므로 後者로 통일하였다.⁵⁰⁾

1931년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는 工業의 業種分類 樣式이 다르므로 時間的比較가 가능하도록 1931년 이후의 樣式으로 再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개스 및 電氣業과 其他工業을 포함하여 10個業種으로 되어 있다. 이中에서 개스 및 電氣業과 印刷業은 1931년 이전의 그것과 對比할 수가 없어 배제했고, 其他工業은 그 內容이 家內手工業 내지 傳統工業의 性格을 띠고있는 것으로서 이 部門의 붕괴 과정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分析의 對象이 된 業種은 총 8個業種이며, 工產品 生

産額에 관한 限 1915년에서 1940년 까지 통일적으로 커버한 셈이다.

2. 殖民地의 工業立地 展開過程의 前提

(1) 殖民地 經濟關係의 變遷

1) 合併以前

1910년 合併條約은 한낱 형식적인 宣言에 불과할 뿐, 이땅에 日本經濟가 미친 영향은 이미 開港以後부터 적지않은 것이었다. 특히 淸日·露日戰爭을 거쳐 強制合併에 이를 때 까지 실로 朝鮮貿易의 相對者는 日本이며, 그 담당자는 日本 商人이며, 商品의 輸送者는 日本船舶이며, 日本資本이 건설한 鐵道이었다⁵¹⁾. 이에 대한 最大의 犧牲은 두말할 것 없이 李朝의 商人資本과 家內手工業이었다. 當時의 韓國 經濟·社會는 비록 그것이 低位의 農業生産力을 기반으로한 自給自足の 半封建經濟에 지나지 않았으나 社會內部에서는 近代化의 욕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같은 欲求가 日本에 의해 無力化된 이후, 韓半島經濟는 日本 資本主義經濟의 발전 단계에 따라, 或은 日本의 韓國에 대한 殖民地政策 如何에 따라, 發展의 方向과 內容이 規制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 鈴木正文⁵²⁾은 朝鮮半島는 日本工業 製品의 市場으로서 確保함이 경제적으로 日本側의 第1目標이며, 그 다음으로 原始産業地로서 日本에의 原料 또는 食糧의 供給地로 育成함이 第2의 目標이라고 논하고 있는데, 이밖에도 日本의 大陸進出을 위한 經濟的·軍事的 前進基地의 역할이 第3의 목표이었음을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같은 세가지 목표는 日本의 對韓 殖民地 關係의 年次的 變遷을 잘 요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開港以後 合併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韓半島에

50) 工産物 生産額은 工場生産額에 다다 從業員 4人以下의 家內工業 生産額 및 官營工場 中の 專賣局, 鐵道局 刑務所의 生産額을 加算하고, 製綿·製材·精穀業의 加工賃을 控除한 것이다. 筆者는 이 中에서 專賣局 煙草生産을 除하고 活用하였다.

51) 金錫淡, 1949, 朝鮮經濟史, 法文出版社, p. 222.

52) 鈴木正文, 1938, 朝鮮經濟의 現段階, p. 8.

대한 代表的인 經濟政策을 든다면 1905년에 단행된 貨幣改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貨幣制度를 金本位制로 하고 日本貨幣를 通用함으로써 韓半島를 經濟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課業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당시 通用되고 있던 葉錢과 白銅貨는 強制的으로 回收·整理될 뿐 아니라 이에 依存하고 있던 李朝의 中小商人資本은 一瞬에 沒落過程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日本은 저들의 第一銀行支店을 사실상 韓國中央銀行의 地位에 올려 놓고 1906년에는 農工銀行, 1908년에는 東洋拓殖會社를 創設하는 등, 金融機關의 정비를 통하여 조직적인 高利貸金業을 자행하므로써 여기에서 축적된 資本은 대규모의 土地所有 投資에 向하게 되었다. 결국 日本은 自國內의 資本에 의존함이 없이 高利貸金으로 蓄積한 資本을 통해서 가장 實利가 있는 土地所有에 投資하게끔 된 셈이다. 당시의 韓半島 事情으로는 工業投資를 위한 諸 條件이 不備했을 뿐 아니라 저들이 必要로하는 상품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극히 용이했고, 그 위에 地價는 日本의 約 1/10, 土地의 登錄費用이나 租稅負擔에 큰 利益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⁵³⁾

2) 第1 段期(1910~1919年)

合併에서 1919년에 이르는 이른바 第1 段期の 代表的 施策을 든다면 1912년에 始作된 大規模의 土地調査事業이 있고, 이밖에 關稅制度和 會社令은 이 時期의 韓半島 經濟를 알아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日本人들의 土地所有는 이미 合併以前부터 相當程度 進展을 보이고 있었으나 本格的으로 遂行된 것은 1918년에 終了된 土地調査事業을 통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土地에 대한 近代의 所有權이 확립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過程에서 ① 日本資本과 土着封建層은 莫大한 農民의 土地를 盜掠하였고, ② 半封建的 生産關係를 編成 確立하였다.⁵⁴⁾ 그것은 또한 資本家的 生産諸力の 完全한

解放, 一般農民의 封建的 搾取로부터의 完全한 解放이라는 見地에서는 전혀 불철저한 것이었고, 오히려 過去의 時代로부터 그대로 답습된 零細農的 生産樣式의 기초위에 半農奴的인 生産方法을 再生産하였다는 點에서 그것은 전혀 進歩的 內容을 결여하고 있었다.⁵⁵⁾ 土地調査事業은 위와 같은 結果 以外에도 日人和 韓國人의 土地에 대한 不平等한 地價算定 및 收稅政策을 통해서 總督府의 財政收入 增大策이 확보될 뿐 아니라 工業化는 極端的으로 억제되는 한편 農業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進歩的 政策이 없으므로 해서 韓國人은 그야말로 프로레타리아의 地位로 묶일 수 밖에 없었다.

日本이 韓半島에 펼친 다른 또하나의 資本主義的 基礎工作으로는 1910年 이후 10年間 施行된 舊李朝의 낮은 關稅率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列強諸國과의 通商상의 紛하나 마찰을 피하고 總督府의 안정된 財政收入源을 확보하기까지의 임시적 財政收入 措置이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合併以後 10年間은 通商에 관한 限 日本과 韓國이 別個의 單位로서 일단 격리된 存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勿論 이것이 韓國의 在來手工業을 保護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植民地經營에 所要되는 資金을 現地調達함에 그 根本的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저들은 1911年의 朝鮮會社令을 통해서 韓國國內에 會社企業을 모두 設立許可制로 하므로써 朝鮮에 있어서 會社의 설립이 부자유하게 되고, 日本資本의 流入이 어느 정도 人爲的으로 억제되는 結果를 낳았다.⁵⁶⁾ 이것은 日本資本의 流入만을 억제한 것이 아니고 日本과 競爭이 될 企業育成을 회피하는 동시에 “朝鮮人の…… 工業發生·發展을 拒否코자 하는”⁵⁷⁾ 目的을 통해서 韓半島를 영구히 原始産業地 내지 상품판매 시장으로 묶어 두려는 의도이었다. 結局, 日本은 植民地 韓國에서 마련한 資金으로 合併以前부터 추진하고 있던 鐵道·道路·港灣施設을 확장함으로써 日本

53) 山田三郎編 1971, 韓國 工業化의 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p. 14.

54) 全錫淡, 1949, 前掲書, p. 227.

55) 朴文圭, 1933, “農村社會 分化的 起點으로서의 土地調査事業에 관하여,”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社, pp. 525~529.

56)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1939,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p. 59.

57) 鈴木正文, 1938, 前掲書, p. 431.

經濟進出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注力하였던 것이니 이같은 目的이 어느 정도 達成된 1920년에 와서는 「會社令」을 철폐하게 된다.

3) 第2段期(1920~1930年)

韓·日關係 第1段期까지를 植民地의 基礎工作期라고 한다면, 第2段期는 日本商品의 販賣와 食糧 및 工業原料의 획득에 주력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부터 2次에 걸쳐 실시된 이른바 產米增産計劃은 이 時代의 代表的인 施策이었으며, 이미 第1段期부터 계획적으로 實施하고 있던 棉花增産策 및 양잠장려책과 더불어 당시 韓·日間의 經濟關係를 잘 반영하는 정책들이다. 한편, 第1次大戰으로 好景機를 이루던 日本內 産業은 大戰終了와 더불어 침체상태에 빠져, 過剩投資했던 遊休資本의 排出口를 韓半島로 삼게 되니 從來에 실시하여 오던 關稅制度 및 會社設立의 許可制를 1920년에 와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政策을 바꾸게 된다. 從來의 關稅制度를 廢하고 統一關稅를 시행하므로써 韓半島에 대한 日本商品 및 企業이 자유롭게 移動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產米增産計劃이 政策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될 그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日本은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食糧의 絶對不足 現象을 일으켜 每年 相當量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었다. ② 第1次大戰을 통해서 日本의 輕工業은 國際的 競争隊列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日本의 파격적인 低賃金 勞動에 依存되고 있었다. 여기에 米價의 暴騰은 賃金上昇의 要因이 되고 따라서 低賃金에 依支하고 있는 輕工業의 國際的地位가 흔들리게 되었다. ③ 1920年代의 韓國은 電力不足이 決定的 要因이 되어 工業部門 보다는 農業이나 이와 관련된 部門에의 投資가 絶對 有利했다. 특히 日本에 比해서 地價가 低廉한 위에 低賃金 勞動에 依한 土地改良事業費가 적게 들고, 현저한 增收가 期待된다는 것이 當時 朝鮮總督府의 計算이었다.⁵⁸⁾ 이밖에 3·1 獨立運

動 以後의 文治主義 政策을 僞裝하는 利點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同計劃의 結果는 무엇인가? ① 土地改良事業을 위한 과대한 農民의 負擔은 오히려 土地價格을 暴落케 하여 自作農이나 中小地主를 몰락케 하므로써 農民層의 兩極分解를 촉진시켰다. ② 日本에의 米穀搬出은 每年 增大되어 韓半島內에서는 오히려 食糧不足 現象을 가져왔다. ③ 米穀增産과 米穀輸出의 增大로 未曾有의 精米工業의 簇生을 보게 되었는데, 農民은 最終製品인 白米生産을 위한 한낱 原料供給者에 不過했다. 더구나 1930年代에 들어서는 日本內에 있어서 米價暴落과 日本農民의 「鮮米排斥」이 激化되어 1934년을 마지막으로 同計劃은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나 米價暴落은 韓國農民에게도 收入減少의 結果로 나타나서 加一層 中小農民의 沒落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4) 第3段期(1931年 以後)

1930年 이후 韓·日間の 植民地의 經濟關係는 韓國을 「大陸前進兵站基地」⁵⁹⁾로 建設키 위한 韓國의 鑛工業開發에 重點을 두었으며, 同時에 戰爭遂行을 위한 軍需工業 建設에 注力하였다. 1931年 世界의 大恐慌의 影響을 받은 日本 産業界는 不況을 打開하기 위한 對策으로서 操業短縮을 斷行하거나 或은 企業體 相互間이 關稅를 強化하는 한편 밖으로는 遊休資本의 海外進出을 기도했던 것이다.⁶⁰⁾ 1931年 日帝가 滿洲에 대하여 武力侵略을 감행한 것은 이러한 日本 産業界의 危機의 한 克服策이었던 것이다. 獨占의 強化를 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日本政府는 1931年 「重要産業統制法」을 公布하므로써 事實上 日本의 經濟는 自由經濟體制에서 統制經濟體制로 轉換된 셈이었다. 獨占의 강화는 동시에 中小企業의 沒落을 意味하는데, 이같은 企業은 當時의 統制圈 外에 있었던 韓國에 進出하였고, 또 大企業에 있어서도 操業短縮에 依하여 發生한 遊休資本은 韓國에 진출케 된 것이

58) 朝鮮總督府, 1926, 朝鮮產米增産計劃要綱, p. 4.
同拓殖局, 1926, 朝鮮產米增産に關する意見, p. 13.

59) 鈴木武雄 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p. 100.

60) 趙璣濬, 1973,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亞細問題研究所, p. 409.

表 1. 産業別 生産額 推移

〈單位：千圓〉

年次	農 業	林 業	水 産 業	鑛 業	工 業	合 計
1910	221,099	19,240	13,072①	6,068	27,900②	287,379
1915	374,323	22,945	21,030	10,516	54,925	483,739
1920	1,323,989	30,206	61,108	24,205	204,385	1,643,893
1925	1,202,659	53,486	85,825	20,877	269,364	1,632,211
1930	707,010	63,360	82,888	24,654	280,964	1,158,876
1935	1,127,641	114,005	133,883	88,039	607,477	2,071,045
1940	2,052,562	236,674	372,727	240,000③	1,873,634	4,775,597

註：①은 1912年 計數 ②는 1913年 計數 ③은 「朝鮮經濟年報」昭和16~17年版에 의한 推定
 資料：「朝鮮總督府 統計年報」各號 및 朝鮮農會版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다. 따라서 이 時期는 韓半島에 있어서 未曾有의 鑛工業 全盛時代를 맞게 되는데, 本意아니게도 植民地 韓國을 農本主義에서 工業主義로 轉換키 않으면 아니될 또 다른 背景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① 產米增産計劃을 중지하자 韓國에 있어서 農業恐慌은 一層 激化되어 農民生活은 悲慘할 程度에 이르렀다. 1931년부터 植民地 統治者들은 南棉北羊, 田作改良增産計劃 등 農業의 多角經營政策을 표방하였으나 이같은 대책으로는 韓國內에서의 米穀消費量의 增大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日本에의 米穀移出의 抑制를 기대할 수 없었다.⁶¹⁾ 결국 韓國內에서의 有效需要의 創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② 韓半島의 經濟政策을 工業主義로 轉向키 않으면 안될 또하나의 이유는 풍부한 地下資源과 電力 및 低賃金 勞動을 이용해서 大陸進出에의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紡績·化學·機械·金屬工業의 비약적인 發展을 보여서 1937년에는 中·日戰爭, 1941년에는 太平洋戰爭을 일으키므로서 모든 産業은 戰時·軍需産業 體制로 急旋回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韓·日間의 植民地的 關係가 産業構造 및 工業構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反映되었으며, 이것은 나아가 立地構造의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가? 節을 달리해서 논하기로 하자.

(2) 産業構造의 推移

1) 生産額 構造의 推移

解放前 36年間의 植民地 政策은 소위 植民地的 特徵의 産業構造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表1은 1910년 이후 5年間隔으로 정리한 産業別 生産額인데, 合併直後의 計數와 農業生産額에 있어서 統計上 약간의 問題點⁶²⁾은 있으나 1915年을 기준으로 볼때 名目上의 總産額은 約 10倍나 증가한 것이다. 이것을 物價變動의 影響을 참작하여 不變價格으로 처리한 것이 表3이다. 이에 따르면 實質上의 生産額 增加는

表 2. 産業別 生産額 構成比

年次	農 業	林業	水産業	鑛業	工業	合 計
1910	76.9%	6.7%	4.5%	2.1%	9.7%	100.0%
1915	77.4	4.7	4.3	2.2	11.4	100.0
1920	80.5	1.8	3.7	1.5	12.4	100.0
1925	73.7	3.3	5.3	1.3	16.5	100.0
1930	61.0	5.4	7.2	2.2	24.2	100.0
1935	54.4	5.5	6.5	4.3	29.3	100.0
1940	43.0	5.0	7.8	5.0	39.2	100.0

資料：表1과 같음

1915年을 基準하여 1940年까지 約 3倍에 이르고, 1945年 大戰末까지는 더욱 많은 증가를 나타냈을 것으로 思料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日本이 第3段期의 政策으로 突入했던 1931年 이전까지는 産業 生産額의 變動이 그다지 크지 않은 點이다.

61) 產米增産計劃의 中止 以前에도 韓國에 있어서 食品工業이 相當한 比重을 占하는 理由는 새삼스럽게 說 消費를 장려한 탓도 있다.

62) 合併直後의 統計는 調査上 不備點이 있고, 農業生産額은 資料에 따라 相當한 差가 있다.

表 3. 産業別 生産額 推移 (修正價格)

<單位：千圓>

年次	農 業	林 業	水 産 業	鑛 業	工 業	合 計
1910	221,099	19,240	13,072	6,068	27,900	287,379
1915	353,135	21,646	19,840	9,921	51,816	456,358
1920	458,128	10,452	21,145	8,375	70,721	568,821
1925	462,561	20,572	33,010	8,030	103,602	627,775
1930	392,783	35,200	46,049	13,697	156,091	643,820
1935	704,776	71,253	83,677	55,024	343,207	1,257,937
1940	655,771	75,615	119,082	76,677	598,605	1,525,750

註：修正價格은 1910.7=1 (서울도매물가)
資料：表1과 같음.

1910년과 1915년 數値의 差異는 實地 生産額의 差異라기 보다는 合併前後에 있어서 統計不備로 볼 수 있는 까닭이에 1910년과 1915년의 生産額 差異를 근소한 것으로 본다면 合併以後 1930년까지는 韓半島 産業全體가 그다지 變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韓半島 經濟地理의 실질적인 변화는 日本이 저들의 不況을 打開하고 韓國을 大陸 前進의 基地로 삼기 위하여 鑛工業開發에 주력하던 時期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植民地 統治 第3 段期の 出發과 관계되는 巴 動力革命 (1929년), 滿州事變(1931년), 主要産業統制法(1931년) 등이 나타나기 以前까지의 日本의 韓國에 대한 産業政策은 韓國을 영구히 原始産業 狀態로 묶는 길이었던 것이다.

表 4와 그림 2는 1920년을 기준으로한 産業別 生産額의 指數變動을 나타낸 것이다. 農業生産額에 있어서 指數의 심한 流動性은 米價의 심한 變動을 반영하며, 특히 1920년 「産米增産計劃」이 實施되기 까지, 生産액의 계속적 增加와 1920~1930년의 計劃期間에 있어서 米價暴落으로 因한 生産액의 停滯 내지 減少現象은 매우 대조적이다. 결국, 日本은 産米增産計劃을 통해서 韓半島에는 豊年饑饉을 남겼고, 대량의 쌀을 賃값으로 日本에 搬入한 결과 이외에는 아무런 實効를 見우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1920년을 基準으로 삼고 1940년에 나타난 各生産額 指數로 보아서는 農業을 제외하고는 모든 産業이 적어도 5 倍 이상의 增加는 보이고 있다. 특히 鑛工業에 있어서는 1930년을 經계로 하여 그 前後가 큰 變動이 있는데, 이것은 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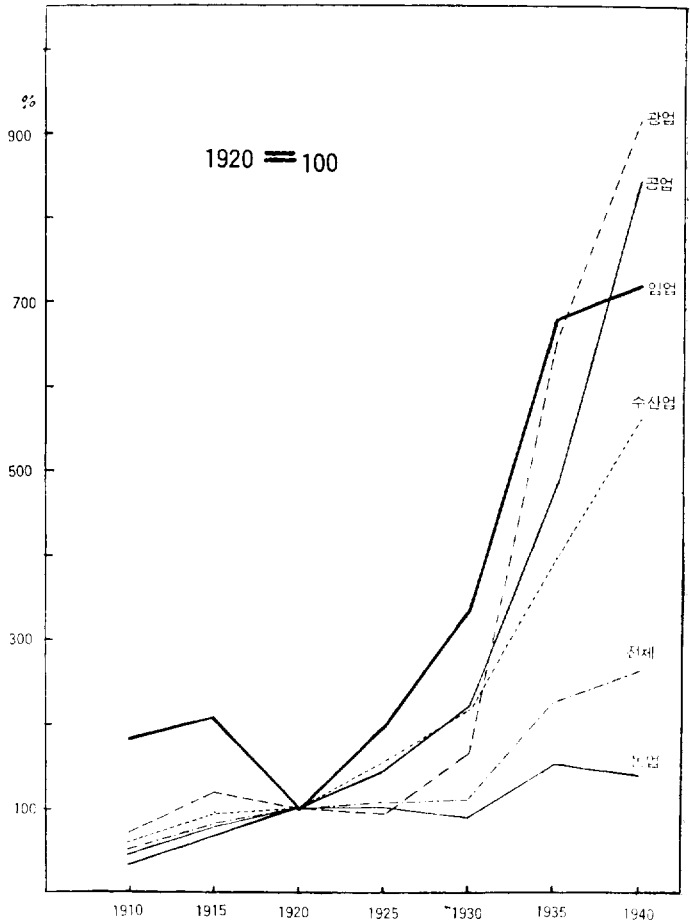


그림 2. 産業別 生産額指數의 推移

表 4. 産業別 生産額指數

(1920=100)

年次	農業	林業	水産業	鑛業	工業	合計
1910	48	184	62	72	39	51
'15	77	207	92	118	73	80
'20	100	100	100	100	100	100
'25	101	197	156	96	146	110
'30	86	337	218	164	221	113
'35	154	682	396	657	485	221
'40	143	723	563	916	846	268

資料: 表1과 같음.

할 것 없이 鑛工業의 構造的 跛行性은 如何 間에 第3段期の 植民政策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工業에 있어서 1920~1930年間の 生産額 增大(約2倍)는 産米増産計劃으로 인한 群小 精米業과 釀造業 등의 簇生을 의미하며, 1940년까지 계속 증가를 나타낸 水産業과 林業은 總生産額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規模는 아니지만 당시 日本의 植民政策이 韓半島 內에 부존된 各種 資源을 總動員하였던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表 2는 各 産業別·年度別 生産額의 構成 比率를 나타낸 것이다. 全體적으로 보면, 大體로 1925년 까지가 構成比에 있어서 그다지 큰 變化가 없고, 1930년에 있어서도 이를 準하고 있으나 1935년 이후에 가서 工業 比重의 上昇과 農

比重의 相對的 下落이 顯著함을 볼 수 있다. 農業에 있어서는 1918年 米價暴騰으로 인한 1920년의 比重이 80.5%에 이르다가 그후 계속 下落하여 1940년에 와서는 農工 比重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 1940年以後의 統計를 볼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아마도 1943年頃에는 工業生産額이 農業生産額을 壓倒했으리라 짐작된다. 물론, 이것은 中日戰爭 및 太平洋戰爭의 발발로 인한 軍需的 重化學工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이며, 韓半島에 있어서 眞正한 工業成長을 뜻하지는 않는다.

2) 勞動力 構成과 生産性

舊韓末葉의 戶口調査를 통한 職業別 人口構成은 3.1%의 支配階級을 除外하고는 나머지가 物的 生産에 관련된 人口이며, 그중에서 84.1%가 農業에 종사한 人口로 보고되어 있다.⁶³⁾ 農業을 위시한 原始産業에의 偏重構造가 적어도 1930년 경 까지도 別로 變치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資料가 表 5이다. 여기에서 1917년과 1925년의 資料는 戶口調査에 의한 결과이며, 1930년과 1940년의 그것은 國勢調査의 결과인 때문에 職業調査의 方法에 통일성이 없고,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産業別 혹은 職業別 人口의 構造를 把握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이 統計表에

表 5. 産業別 勞動力人口

<단위: 千명>

	年次	農林業	水産業	鑛業	工業	商業	交通業	公務自由業	其他	無業	合計
人口數	1917	9,289	146	221	588	588	148	245	283	10,920	
	1925	9,553	163	249	685	685	259	340	248	11,497	
	1930	7,665	122	34	586	562	107	183	507	9,766	
	1940	6,685	135	177	495	601	152	239	712	9,196	
比 重	1917	85.1%	1.3%	2.0%	5.4%	5.4%	1.4%	2.2%	2.6%	100.0%	
	1925	83.0	1.4	2.1	6.0	6.0	2.3	3.0	2.2	100.0	
	1930	78.5	1.2	0.4	6.0	5.8	1.1	1.8	5.2	100.0	
	1940	72.7	1.5	1.9	5.4	6.5	1.6	2.6	7.8	100.0	
指 數	19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25	103	112	113	116	116	175	139	88	105	
	1930	83	84	281	114	114	124	207	—	89	
	1940	72	92	304	128	128	161	291	—	84	

資料: 金哲, 1965, 韓國의 人口と經濟, 岩波書店, p. 165, 指數는 筆者 計出.

63) 善生永助, 1927, 朝鮮의 人口現象, pp. 93~94.

서 留意할 점은 農林業 人口의 減少인데, 이것이 統計調査의 統一性 欠如에도 문제는 있으나 日本의 統治期間에 있어서 米價의 暴落과 農工 産物의 不等價 交換 및 新 地主層의 혹독한 수탈 과정을 念頭에 둔다면 相當數의 脫農이 있었으리라 짐작되고, 假使 그동안에 農林業 人口의 絶對的 減少가 없었다 하더라도 植民地 내지 後 進國 農業人口의 特徵은 그 방대한 僞裝失業者 의 存在이므로 農林業 人口의 構成比는 別 意味 가 없다⁶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點을 前提로 하고 鑛工業 部門의 변동을 주로 하여 검토하자

植民統治期間 전체를 통해서 韓半島의 産業은 生産額으로 따지는 限 크게 달라졌음에 반해서 勞動力에 있어서는, 假使 絶對的 減少가 없었다 하더라도, 큰 變化를 볼 수 없다. 특히 이 期間 에 鑛工業의 生産額은 8 倍 이상의 증가를 보였 음에 반해서 勞動力은 約 3 倍의 증가를 나타낼 뿐이다. 1930 年以後 鑛工業開發에 重點을 둔 政策 에도 불구하고 1930~1940 年間的 雇傭增大은 不過 52 千人, 1917 年을 기준으로 보아도 純增加 는 451 千人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 中에는 日本人의 勞動力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統治期間 第3 段期에 工業化가 推進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雇傭增大에 미치는 영향은 極히 微微한 것일 뿐 아니라 人口增加의 규모나 農村의 방대한 不完全 就業을 고려에 넣을 경우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工業化가 아닌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적인 構成比率를 보아도 1917 년에 있어서 農林業 85.1%, 商業과 交通業 5.4%, 鑛工業 2.0%의 典型的 原始産業 雇傭構造는 1925 年에도 大同小異하고, 1930 년에는 鑛工業 이 1925 年의 2.1%에서 6.4%로 變換한 것 이외 는 큰 變動이 없을 뿐아니라 1940 年의 그것은 1930 年의 構造가 若干 強化된 것 뿐이다.

그림 3은 表 4와 表 5의 年度別 産業別 指數의 相對的 成長을 보기 위한 것이다. 화살표가 上 向할수록 生産額이 增大된 것을 뜻하며, 화살표가 右 向할수록 雇傭增大을 뜻한다. 따라서 화살표의 길이는 그만큼의 成長量으로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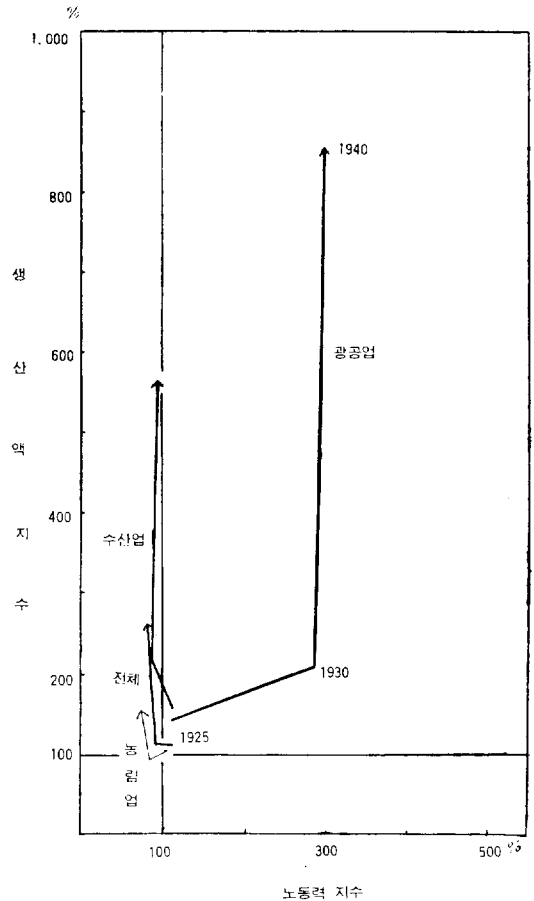


그림 3. 生産額과 勞動力의 相對的 成長

으며, 화살표가 回歸線을 指向할 경우에는 生産額과 雇傭이 並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과 같이, 鑛工業에 있어서는 1930 年까지 生産額과 雇傭이 거의 並行하고 있다가 1930~1940 年間에는 雇傭에 比해서 生産額이 激增하고 있고, 水産業에 있어서는 1925 年 이후 生産額이 5 倍以上 增大된데 對해서 雇傭은 거의 停滯 내지 減少狀態에 있다. 全體的으로 보아도 産業 生産額은 2 倍 이상 증대된데 反해서 雇傭은 減少 내지 停滯狀態에 있다.

生産額과 勞動力을 하나의 指標로 結合한 것이 表 6의 勞動生産性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1930 年은 역시 韓半島에 있어서 植民地의 産業 變化의 分水嶺임을 指摘할 수 있다. 全年을 통

64) 金哲, 1965, 韓國의 人口と經濟, 岩波書店, pp. 168~169.

表 6. 年次別, 産業別 勞動生産性

〈單位: 千圓〉

年次	농림업	수산업	광공업	산업전체
1917	50.4	144.8	357.9	52.0
1925	50.5	202.5	448.3	54.6
1930	55.8	377.4	273.8	65.9
1940	109.4	882.0	1,004.8	165.9
1917	100%	100%	100%	100%
1925	100	140	125	105
1930	111	261	77	127
1940	217	609	281	319

註: ① 1910年 修正價格으로 換算된 것.

② 勞動人口는 1917, 生産額은 1920 年分이 對比된것.

③ 産業全體는 農林·水産·鑛工業의 總物量生産을 勞動人口全體와 對比한것.

資料: 表 1, 表 5에 의한.

해서 農林業보다도 水産業, 水産業보다도 鑛工業의 生産性이 높고, 生産性的 年別 增大는 1930년과 1940年間에 격증한 것을 제외하면 역시 微進狀態에 있었다. 鑛工業에 있어서는 1925년에서 1930년까지 生産額의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나 그 期間에 그만큼의 雇傭增大로 勞動生産性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1930년에서 1940년까지는 이와 正反對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水産業에 있어서도 鑛工業과 마찬가지로 1930년 이후 生産額의 激增을 보이고 있는데 鑛工業과는 달리 1917년에서 1940년까지 勞動力 增加는 거의 停滯 내지 減少되므로해서 상대적으로 勞動生産性은 높다. 1930年代 이후 肥料·油脂等 非食用 水産製造業의 활발한 動向과 水産業이 일찍부터 日本人 獨占·專有 産業이었음을 勞動生産性이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日本은 韓半島를 統治하는 동안 몇차례에 걸친 相異한 政策을 施行하여 왔으나, 그것이 韓半島 産業構造에 反映된 상태로 보아서는 1930년을 分水嶺으로 하는 그 以前の 構造와 그 以後의 構造로 나뉘어지며, 적어도 1930년 이전까지는 舊韓末의 産業構造를 그대로 留保시키면서 收奪하였던 것이 日本의 韓國에 대한 産業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鑛工業開發이

積極화된 1930년 이후에 있어서도 雇傭에 有限 生産額의 增加 만큼의 雇傭擴大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主要原因을 요약하면, ① 近代的 産業部門이 日本의 大企業에 독점되고, 資本裝備率이 높은 重化學部門일수록 相對적으로 雇傭量이 적은 점, ② 이들 大企業은 大體로 日本 獨占企業의 分工場인 경우가 많아서 關聯産業은 주로 日本과 연결이 되고 있었으므로 資本에 비하여 雇傭量이 큰 中小企業의 發展을 보지 못한 점, ③ 近代的인 日本産業의 韓半島 進出이 韓國人의 家內工業이나 零細企業을 沒落시키고, 이 部門의 雇傭을 枯渴시킨 점, ④ 近代産業部門일수록 日本人 從業者의 比重이 크고, 技術訓練에 대한 韓國人의 門戶가 閉鎖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國內 總生産과 3分割 構造

우리는 앞에서 살펴 온 變動過程을 염두에 두면서 當時의 GNP 構造를 알아 보기로 한다. 1920年代의 韓國農村 經濟가 貨幣로 이루어지지 않는 部門도 相當히 많았으므로 GNP 構造가 과연 意味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筆者도 문제로 삼고 있으나, 이같은 點은 오늘날 先進國 國民計定에 있어서도 完全히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宿題中の 하나이다. 解放前 韓國經濟에 있어서 國民所得을 소급하여 推計한 研究로는 몇 가지 事例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1926年에서 1935년까지를 對象으로한 李潤根의 研究를 土臺로 한다.⁶⁵⁾

表 7은 1930년 이전과 이후의 經濟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産業別 附加價値를 經常價格으로 표시하고 있다. 物價變動을 勘案한 年度別 國民總生産額을 보면 1926년에 17.4億圓, 1930년에는 19億圓으로서, 그동안에 2.4億圓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1930년에서 1935년까지는 19億圓에서 約 7億圓이 增大된 29億圓이 되었으며, 1926년을 100으로 본 指數는 1930년이 109, 1935년이 149로서 亦是 1930년 이후에 急激한 變動이 나타나고 있다. 李潤根의 분석에 의하면,⁶⁶⁾ 1926년에서 1931년까지의 經

65) 李潤根, 1967, 韓國의 國民所得 推計 및 그 內容, 慶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51 pp.

66) 李潤根, 1967 前掲書, pp. 96~98.

表 7. 産業別 國內總生產(經常價格)

〈單位：千圓〉

	1 9 2 6			1 9 3 0			1 9 3 5		
	附加價值	構成比	三分比	附加價值	構成比	三分比	附加價值	構成比	三分比
농, 립, 어 업	1,021,049	58.6	58.5	735,325	50.8	50.8	972,127	49.1	49.1
광 업	19,304	1.1	8.8	19,724	1.4	7.9	70,431	3.6	14.5
제 조 업	135,585	7.7		93,631	6.5		216,799	10.9	
진 실 업	19,206	1.1		22,685	1.6		31,807	1.6	
전기, 수도, 가스, 위생업	5,316	0.3		15,391	1.1		35,479	1.8	
운수, 보관, 통신업	50,808	2.9		55,461	3.8		85,732	4.4	
도매, 소매업	31,667	2.0		34,924	2.4		55,993	2.8	
금융, 보관, 부동산업	35,490	2.0		48,543	3.4		74,743	3.9	
공 공 행 정	54,403	3.1	32.7	64,041	4.4	42.3	73,731	3.7	36.3
서 어 비 스 업	372,480	21.3		357,306	24.7		358,097	18.1	
國內總生產	1,745,308	100.1	100.1	1,447,031	100.1	100.1	1,975,939	99.9	99.9
物價指數(1926=1)	1.00			0.76			0.77		
데 프레 트 價額	1,745,308			1,903,988			2,599,920		
同指數(1926=100)	100.0			109.1			148.9		
成 長 率(%)				5.0			1.05		
1人當國民所得(圓)	91.36			71.44			90.31		

資料：李潤根, 1967, 韓國의 國民所得 推計 및 그 內容, 學位論文, pp. 96~98, 筆者가 再編製함.

濟成長은 거의 每年 負의 成長을 나타내어 1931년에는 -13.3%로서 最低地點을 나타내었고, 1932년부터는 每年 10%以上の 高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1930년을 前後로한 世界的 大恐慌의 여파와 1930년 이후의 鑛工業開發 政策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GNP나 勞動力 構成을 3分割構造에서 살펴보자. 勞動力 構成에 관해서는 前記 表5의 內容을 第1, 2, 3次 産業으로 再編하므로써 大體의 動向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農·林·水産業을 합친 第1次産業의 勞動力 比重은 1917년에 86.4%에서 1930년에는 79.7%, 1940년에는 74.2%로 漸次 縮少되고 있다. 이것은 表7의 GNP 構成比에서도 비슷한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C. G. Clark나 S. Kuznets가 발견한 일반적 傾向과 다를바 없다. 日本에 있어서 第1次産業의 勞動力 構成比는 1877~1882년 평균이 83%로 나타나 있고⁶⁷⁾, 解放前 韓半島의 그것은 表5에서와 같이 1925년 數值가 이와 비슷한 比重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1870년 美國의 第1次産業의 勞動力 構成比는 54%로 나

타나 있고, 이것은 韓國의 1967年頃의 數值와 흡사하다.

C. G. Clark나 S. Kuznets의 一般의 解釋에 따르면, 第2次産業의 GNP 構成比는 時間에 따라 上昇하는 反面, 勞動力 構成比는 長期的으로 보면 不定型이거나 一定水準에서 停止하는 傾向이 나타난다고 한다. 李潤根의 算出에서는 第2次産業의 GNP 構成比가 1930년에서 1932년까지 상대적으로 縮少現象을 보인 것 以外는 全般的으로 上昇現象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마 推計期間이 長期에 걸친 것이라면 上昇現象은 더욱 顯著했을 것이다. 表5의 勞動力 構成比를 보면 第2次産業의 比重이 1917년이 2.0%에서 1925년의 2.1%, 1930년의 6.4%, 1940년의 7.3%로 漸次 上昇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前述한 Clark나 Kuznets의 一般의 解釋과 반드시 똑같지 않다. 勿論, Clark나 Kuznets의 일반적 解釋을 찾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기이다. 그러나 GNP나 勞動力이나 간에 第2次産業에 관한 限 그 構成比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變化에 急遷點이 確認되고 있는 점이 특이

67) 篠原三代平, 1966, 産業構造論, 筑摩書店, p. 7.

하다. 즉 GNP 構成比는 1930 년과 1935 年間이急遷點이고, 勞動力 構成比는 1925 년과 1930 년間이急遷點으로 나타나 있다. 結局 兩者 間에若干의 時間적 差이는 있으나, 그리고 産業構造의 質的 內容이 植民地的 跋行性을 면할수 없지만 第2次産業의 比重이急變하는 時點은 韓半島에 있어서 工業化가 전개되기 시작한 時點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産業構造의 推移가 全體的 工業構造의 變化에는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었을가? 이에 대해서는 節을 달리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3) 工業의 成長과 業種構造의 推移

1) 工業의 成長

解放前 工業統計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31 年前後가 業種分類 樣式이 다르고, 集計基準에 있어서도 1912 年前後, 1920 年前後 및 1929 年 後가 各各 조금씩 다르다. 地域別, 年度別 變動을 統一적으로 보기 위해서 選擇한 工產物 生産額에 있어서도 1925 年版 總督府 統計年報가 收錄한 1911~1924 年間的 計數와 1932 年版이 기록한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後者로 통일하였다. 工產物 生産額을 長期間에 걸쳐 비교할 경우에 物價變動을 고려해야 되는데, 解放前 物價指數의 算出은 1910 年 7 月을 기준으로한 指數와 1936 年 平均을 基準으로한 指數가 있다. 前者는 代表系列 30 個 品目에 대한 單純算術平均法에 의한 것이고, 後者는 80 個 品目에 대한 單純 幾何平均法이 적용된 것으로서 어느쪽이건 間に 處理上의 脆弱性은 있다. 그러나, 이 以上의 資料도 없는 위에 全般的 趨勢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1910 年 7 月 「京城都賣物價指數」에 의한 메프레트 價額을 사용하였다. 工業成長率은 원칙적으로 附加價值額을 써서 算出해야 되지만 資料의 한계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表 8 은 이렇게해서 정리된 것이며 工場數, 從業員數, 工產物 生産額이 표시되어 있다. 1915 年 현재 工場數는 800 個所 未滿이었던 것이

1920 년에 와서 2,000 餘個所, 1930 年엔 4,000 餘個所, 1943 年에 와서는 15,000 餘個로서 1920 年을 基準으로 보면 1943 년에는 約 7 倍나 증가된 것이다. 똑같은 期間에 從業員數는 約 10 倍, 生産額은 約 8 倍로 증가하였다.

解放前 全期間을 통해서 工業成長率은 年度別로 甚한 振幅이 있고, 1910 年代 前半의 不確實한 統計值를 무시한다면 1918 年부터는 漸次成長하여 1931 年 이후에는 急成長을 보이게 된다. 日帝가 植民地 經營을 위한 기초적 工作를 상당히 굳혀 놓고, 1920 年에 와서는 會社令 撤廢, 統一關稅 施行 등의 政策을 통하여 大戰 直後의 日本內에 있어서 不況打開의 길을 韓半島에서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 반영된다. 즉, 1920 年代의 韓半島는 日本 內 遊休資本의 유일한 拂出口이었으며, 바로 이 時代는 韓半島가 日本의 初期的 資本主義 經濟를 高度의 工業化 段階로 끌어 올리는데 貢獻한 時代이었다⁶⁸⁾. 그러나 당시 韓半島의 工業立地條件은 電力不足이 決定的 이었고, 食糧과 工業原料의 收奪 및 이에 關聯된 分野의 開發이 時急하였으므로 後述하는 바와 같이 食品·섬유· 고무·皮革 등의 消費財 내지 輕工業 部門의 投資를 除外하면 本格的인 工業投資가 행하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같은 사실은 1920 年代의 企業會社 實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21 년에 728 個의 企業會社 중에서 製造業 部門에 속하는 會社는 161 個社로서 그 占有比는 22.1% 였다. 이것이 1930 年에 와서는 총 2,897 個社 중에 657 個社가 製造業 부문에 해당하며, 占有比率로는 22.8%로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拂入資本金에 있어서 近 10 餘年間に 約 3 倍 가량 增大되었으나 一社當 平均資本金으로 따지면 1921 년의 約 12 萬圓에서 1930 년의 約 10 萬圓으로 오히려 減少現象이 나타나고 있다.⁶⁹⁾ 또한 拂入資金의 業種別 實態를 보아도 產米增產計劃의 실시로 亂立한 精米業 中心의 食品工業을 비롯해서 化學工業 부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後者의 경우는 資本金 2,250 萬圓의 興南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包含된 이외에 王子製紙, 南鮮製紙 株式會

68) 黃炳峻, 1965, 韓國의 工業經濟, 亞細亞問題 研究所, p. 24.

69) 朝鮮工業協會, 1931, 會報, 第7號, p. 6, 統計參照.

表 8. 年別 工場數, 從業員數, 生産額 推移

年 度 別	工 場 數	從 業 員 數	工 產 物 生 産 額 (千圓)	修 正 價 額 (千圓)	年 成 長 率	1920=100
1911	252	14,575	N. A	17,535	N. A.	24.8
12	328	17,376	N. A	24,067	N. A.	34.0
13	532	21,032	27,900	23,445	N. A.	33.2
14	654	20,963	28,790	25,937	N. A.	36.7
15	782	24,539	54,925	51,816	—	73.3
16	1,075	28,646	60,359	48,287	-6.8	68.3
17	1,358	41,543	84,732	47,602	-1.4	67.3
18	1,700	46,749	143,799	62,794	31.9	88.8
19	1,900	48,705	228,495	70,064	25.9	99.1
1920	2,087	55,279	204,385	70,721	-10.6	100.0
21	2,384	49,302	200,636	88,386	25.0	124.9
22	2,900	54,677	223,343	93,842	6.2	132.7
23	3,499	69,412	233,629	102,021	9.3	144.3
24	3,845	73,184	250,762	106,707	4.6	150.9
25	4,238	80,375	269,364	103,602	-2.9	146.5
26	4,293	83,450	299,968	128,194	23.7	181.3
27	N. A.	N. A.	302,946	136,462	6.4	193.0
28	4,010	92,566	318,714	148,932	9.1	210.6
29	4,025	93,765	327,007	157,215	5.6	223.3
1930	4,261	101,943	280,964	156,091	-0.7	220.7
31	4,613	106,781	252,925	173,236	10.0	245.0
32	4,643	110,650	310,837	231,968	33.9	328.0
33	4,838	120,320	367,236	223,924	-3.4	316.6
34	5,126	138,809	438,402	274,001	22.4	387.4
35	5,635	168,771	607,477	343,207	25.2	485.3
36	5,927	188,250	730,806	380,628	10.9	538.2
37	6,298	207,002	959,308	470,249	23.5	664.9
38	6,624	230,996	1,140,118	463,463	-1.4	655.3
39	6,952	270,439	1,498,277	559,059	20.6	790.5
1940	N. A.	N. A.	1,873,634	598,605	7.0	846.4
1943	14,856	549,751	2,050,000	546,667	—	773.0

註：① 1911~1912年 生産額은 大正 4年版「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서.

② 1943年 生産額은 1948年版「朝鮮經濟年報」에서.

③ 1915年以前의 成長率은 통계의 신빙성 때문에 算出을 포기함.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 7~16年版.

社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小規模의 製革, 動植物油脂·성냥工場이 점유하고 있다. 결국, 1920年代 工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亂立은 불수 있었으나 決코 工業의 比重이 他産業에 比해서 政策的으로 무거워진 것은 아니었다.

植民統治 期間의 各 段期別 年平均 工業成長率을 보면, 1910年代가 12.4%, 1920年代가 7.6%, 1930年代가 14.1%로 記錄되는데, 1910年代의 그것은 1915~1919年間의 平均이다. 1910

年代 전반의 工業의 대부분이 大體로 沒落過程에 있는 家內手工業이었음을 勘案할 때, 1910年代 전체의 年平均 成長率은 1920年代의 그것을 증가했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韓半島는 1920년에 와서 日本 內 遊休資本의 유일한 排出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韓半島 內의 立地 條件 때문에 原始産業과 결부된 小規模의 消費財工業 이외는 成長性 産業이 定着할 수 없었고, 結局에 가서 合併以後 1920年代를 거치는 長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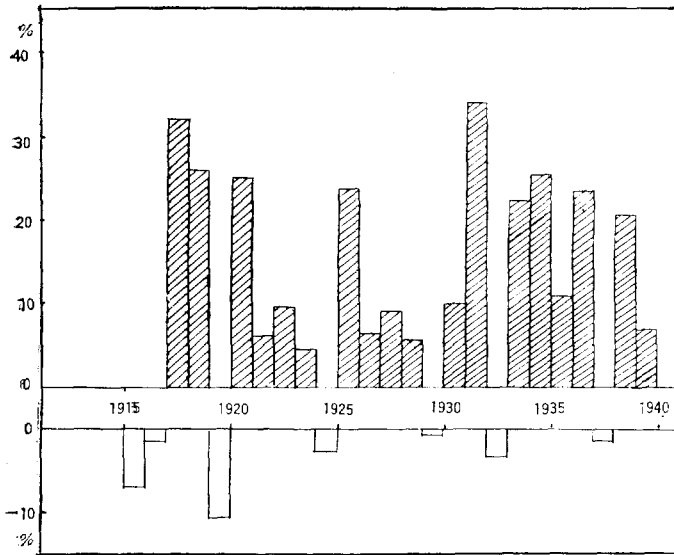


그림 4. 工業成長率

間에 工業의 成長速度는 別다른 挑躍現象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表 8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工業生産額이나 從業員數의 急遷時點은 1931年(從業員數는 1932年)으로 나타나 있고, 이때부터 大戰末까지의 工業成長은 急tempo를 기록하고 있다. 1930~1939年間의 年平均 成長率은 14.1%이며 특히 1932年, 1935年, 1937年의 그것은 모두가 20%를 上廻하고 있다. 이미 앞節의 産業構造推移에서 보여준 實相을 여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日本은 世界的 恐慌에 따른 不況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0年代에 滿洲事變, 中日戰爭, 太平洋 戰爭을 일으켰고, 따라서 韓半島는 그들의 帝國主義的 戰爭遂行을 위한 軍需品 供給基地로 희생되어야 했던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全體産業의 雇傭擴大에는 何等의 變動이 없으면서, 그리고 여전히 農村에는 偽裝失業을 남겨둔채 名目上으로는 韓國의 工業이 重化學 中心의 構造로 轉換된셈이다. 結局 1931年을 急遷點으로 하는 韓半島 工業의 急成長은 軍需産業體制 下의 重化學工業이 主導한 셈이다.

2) 業種構造의 推移 및 業種別 成長類型

日本 內에 있어서 資本主義 展開過程의 矛盾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植民地 政策은 韓國에

있어서 産業構造의 方向을 결정했음은 勿論이고, 具體的으로는 工業의 業種別 趨勢를 決定하게 된다.

表 9와 表 10은 5年 간격으로 정리한 業種構成의 比重과 業種別 生産額 指數이다. 이것은 工産物 生産額 中에서 가스·電氣業 및 印刷業이 除外되어 있고, 官營工場 中에서 煙草 工場의 生産額이 제외되어 있으며, 1915~1940年을 同一한 業種分類, 樣式으로 整理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占有比가 피이크에 도달한 時期와 占有比의 相對的 上昇·下落現象 등이 몇個의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即 植民地 經濟내지 植民地 政策의 충격이 工業의 業種에 따라서 혹은 敏感하게, 혹은 鈍感하게 對應될 뿐 아니라 植民地 統治期間의 主軸을 형성하던 業種이 잘 들어나고 있다. ① 紡織業은 統治의 초

表 9. 年次別 業種構成比

業 種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	%	%	%	%	%
紡 織	19.2	22.2	20.1	17.1	14.5	12.4
金 屬	3.2	5.6	5.3	4.3	5.8	7.4
機 械	1.7	1.6	1.2	2.8	2.0	4.2
窯 業	2.3	4.3	3.5	4.0	3.1	3.3
化 學	7.8	10.5	15.9	16.6	27.3	37.8
木 製 品	1.1	2.1	2.2	2.1	1.5	1.9
食 品	35.7	29.2	33.3	35.3	29.8	19.9
其 他	29.0	24.5	18.4	17.8	16.0	13.1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工産物 生産額에서 印刷·가스·電氣·煙草 生産額을 除하고, 8業種으로 編製하여 算出한 것임.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號

기부터 主軸業種이었으며, 1920年頃을 피이크로 하여 그 이후에 漸次的으로 相對的 弱勢傾向을 나타내는 '緩慢性 低成長型', ② 食品業 역시 統治의 初期부터 가장 큰 比重을 갖는 業種으로서 1920년부터 急成長이 시작되어 1930年頃에 피이크를 이루다가 그 후에는 계속 成長이 鈍化되는 'convex型'으로 判별된다. ③ 化學工業 역시 초기부터 비교적 높은 比重이었으나 1925~1935년에 급속히 변해 1940년에는 工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며, 金屬·機械工業은 工業全體의 比重으로 보아서는 상대적으로 弱勢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1930~1940年間に 급속히 성장하여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같은 特徵의 化學·金屬·機械工業은 전형적인 'concave' 型으로 볼 수 있다. ④ 其他工業은 주로 竹製品, 柶柳製品, 籐製品, 莞草製品, 貝殼製品, 漆器品등 家內手工業 내지 傳統手工業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 部門은 1915년에 가장 큰 比重을 占하던 해를 거듭할수록 漸次 그 比重이 낮아져서 家內手工業의 沒落過程을 歷歷히 보여주는 '계속적 沒落型' 으로 類別된다.

表 10. 年次別·業種別 工業生産額 指數
1920=100

업종	연별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방직		60.9	100.0	128.5	151.2	261.2	416.6
금속		39.5	100.0	132.0	150.5	337.3	916.3
기계		74.9	100.0	110.6	342.0	511.9	1,925.6
요업		38.4	100.0	115.1	182.9	288.2	572.3
화학		52.1	100.0	215.0	309.8	994.4	2,660.6
목제품		36.1	100.0	151.9	201.4	280.6	674.1
식품		86.4	100.0	162.1	237.7	409.9	510.9
기타		83.3	100.0	106.6	142.0	262.0	401.1
계		70.4	100.0	141.8	196.3	400.5	747.5

註: 表 9와 같음. 但 生産額을 1910年 不變價格으로 處理하여 算出한 것임.

資料: 表 9와 같음.

便宜上 金屬·機械·化學 및 窯業의 4 個部門을 生産財 내지 重工業으로 取扱한다면, 生産財工業(重工業)과 消費財工業(輕工業)의 比重은 1915년에 15:85에서 1930년 28:72, 1940년의 52:48로 변하여, 1930年以後 10年間に 重工業中心의 構造 轉換이 놀랄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앞 節에서도 言及되었지만 1930年 이전까지의 業種構造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변동은 있으나 1930年以後에 비하면 거의 심한 변동은 없다. 역시, 이 무렵까지의 植民政策은 工業部門에 관한限 消極的이었음을 立證한다. 結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을 기준으로 본 1940年 現在에 있어서 全體 工業生産額의 增加趨勢를 上廻한 部門은 化學·機械·金屬業이 포함되는 重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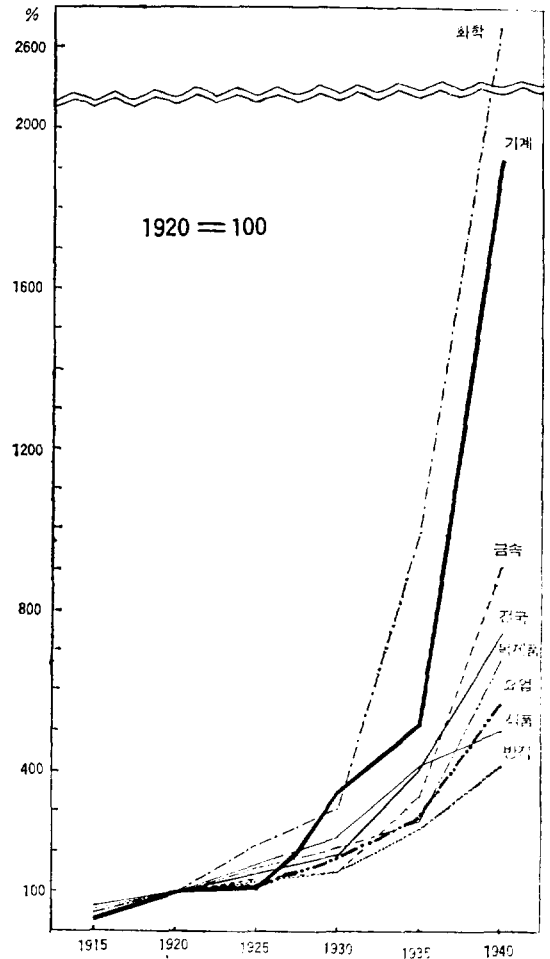


그림 5. 年別·業種別 工業生産額 指數

學部門이다. 이들 三個部門이 構造改編을 主導한 部門이지만 각각 높은 성장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적 遲速이 있다. 假使 1920年을 기준으로 해서 全體工業의 生産額 指數를 上廻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業種을 높은 成長部門으로 본다면, 化學工業은 1920年 이후부터 이미 構造改編에 기여한 것이고, 機械工業은 1925年 이후, 金屬工業은 1935年 이후가 된다.

그러면, 1930年代로 특징지워지는 韓半島 工業의 構造改編에 있어서 植民地의 實相은 무엇인가?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1931년의 滿洲侵略은 韓國의 工業化에 大轉機를 마련했다. 그것은 日本의 大企業이 中國市場을 확보하기 위한 前

進基地로서 韓國에 工場을 建設하게 되었고, 또 한 兵站基地로서 軍需工場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大單位 紡績工業과 시멘트工業의 移植이 前者의 事例에 屬하며, 赴戰·長津江의 水電開發과 興南의 朝鮮窒素肥料工場의 建設은 後者의 事例에 屬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計算으로 韓半島에 진출한 工業은 韓國內의 産業이나 既存 工業體系와는 하등의 關聯性 없는 것이며, 日本의 獨占企業의 直接的인 分工場을 移植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工業의 建設이 아니고, 工場의 建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70) 이와 같은 計劃의 施行은 中·日戰爭, 太平洋戰爭을 通해서 本格化될 뿐 아니라 鴨綠江 水電開發을 비롯한 各種 地下資源 開發을 背景으로 하여 化學·金屬·機械工業에의 構造轉換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重化學部門에의 構造轉換은 동시에 規模構造의 植民地의 特色에 연결된다. 表 11은 業種別·規模別 工場數와 生産額을 構成比率로 표시한 것이다. 平均 從業員 5~30人을 小規模, 30~200人을 中規模, 200人 이상을 大規模으로 볼 때, 重化學部門에의 構造轉換이 충분히 반영된 1939年의 경우에 工場數 81.7%를 占하는 小

工場의 生産額은 불과 16.5%이고, 불과 2%의 大工場이 占하는 生産額은 61.8%나 된다. 特히 化學·金屬·機械·窯業을 包含하는 大規模의 重化學部門은 工場數에 있어서 2~3%에 지나지 않으나 生産額은 거의 半 이상을 占하고 있으며 반대로 小規模經營에 해당하는 그것은 工場數에 있어서 70~80% 이상을 占有하면서도 生産額은 모두가 10% 未滿으로 되어 있다. 紡織 窯業을 포함하는 化學·金屬·機械工業은 그 출발부터가 日本의 獨占企業의 分工場으로 君臨했고 韓半島 內에서는 하등의 關聯·下請도 없는 孤立的 존재이었다. 이에 대해서 不過 10% 未滿의 生産額을 점유하면서 工場數의 대부분을 占하는 小規模工場은 거의가 韓國人의 家內工業이거나 工場制 手工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71) 이같은 二重構造가 解放後 韓國의 工業發展에 重大한 阻害의 要因이 되었음은 두말한 것 없다.

(4) 小 結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植民地 經濟的 統治期間을 3段期로 나누어 본다면, 第1段期는 鐵道·道路·港灣의 建設을 비롯해서 土地投資 등 植民地의 基礎工作期라고 볼 수 있다. 第2段期는 食糧과 原料獲得에 政策의 重點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韓半島가 저들 商品의 販賣市場이 되므로서 日本의 初期資本主義 經濟를 한층 높은 段階로 이끄는 데에 犧牲된 時期이었다. 統治의 第3段期는 日本이 大陸進出을 위해서 韓半島를 兵站基地화하고 이에 必要한 鑛工業開發에 重點을 두었던 時期였는데, 大體로 1930年의 世界의 大不景氣 이후의 시기가 이에 속한다.

이같은 政策은 必然的으로 韓半島 經濟를 長時間에 걸쳐 原始産業 構造로 固着시킨 原因이 되는데, 合併以後 1930年 까지는 原始産業 위주의 構造에 大體로 큰 變化가 없고, 따라서 生産額의 構造 및 그 成長에 있어서 急遷時點은 1931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勞動力 構造나 그 성장에 관한 限 1930年 이전이나 이후나 간에 큰 變動이 없는 것은 植民地의 産業構

表 11. 規模別 工場數 및 生産額의 構成比(1939)

業 種	小 規 模		中 規 模		大 規 模	
	A	B	A	B	A	B
방 직	68%	5.9%	25%	8.3%	7%	85.8%
금 속	82	4.8	15	6.8	3	88.4
기 계	74	17.0	23	30.3	3	52.7
요 업	73	10.8	24	16.7	3	72.5
화 학	79	9.9	19	14.1	2	76.0
목 제 품	82	52.1	17	47.9	0.8	—
인 쇄	83	25.5	16	54.7	1	19.8
식 품	91	41.6	8	53.2	0.6	5.2
개 스, 전기	73	49.8	6	37.0	0.8	13.2
기 타	79	34.8	19	39.8	2	25.4
계	81.7	16.5	16.3	21.7	2	61.8

註：生産額은 工場生産額의 比重, A는 工場數, B는 生産額


資料：鈴木武雄, 1942, 朝鮮의 經濟, pp. 237~239.

70) 金哲, 1965, 前揭書, p. 157.

71) 李如星, 金世鎔, 1935, 數字朝鮮研究, 第5輯, pp. 5~16.

表 12. 植民地的 工業立地 展開過程의 前提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식민지 관계	주요 정책	화폐개혁 금분위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수출입세령		산미증산계획 회사령철폐 통일관세시행		주요산업통제령 금분위제폐지 금수출금지		물가임금통제령 기업장비령 주요물자증산령 국가총동원령	물자동원 계획		
	주요 사건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병	일차대전	불경기	불경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해방		
	특색	식민지 기초공작 고리대금 토지투자 철도 항만도로건설			식료및원료 획득 상품시장화			지하자원개발 공장건설 병참기지화				
	생산액 구조	제 1 차 산업구조 농 임 수산업 88.1% ~ 73.6% (1910 ~ 1930년)						구조전환 광공업 생산액증대 광공업 26.4% ~ 44.2 (1930 ~ 1940년)				
산업 구조	고용 구조	대량의 불완전취업 광공업 2.0% 6.4% (1917 ~ 1930년)						약간의성장 광공업 6.4% ~ 7.3%				
	GNP 구조	1차산업은 점차감소			2차산업은 점차증대			3차산업은 불규칙적 변화				
		1인당소득액 -----> 1926년 91.36원			1930년 71.44원			1935년 90.31원				
공업 구조	연평균 성장률	7.6%						14.1%				
	중공업 비중	15.0% 1915년			27.7% 1930년			27.7 ~ 51.7% 1930년 1940년				
	특색	농수공업	점차 공장공업에의 전환 섬유 식품 고무 피혁			중소공업의 난립 정미 양조업 전성기			중화학중심의 군수 공업 화학 금속 기계			
	금속											
	기계											
	화학		4	4	4	4	2	1				
	방직		3	3	2	3	4	4				
	식품		1	1	1	1	1	2				
	기타		2	2	3	2	3	3				
		← 구조상 큰변화 없음						→ 구조격변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금속 성장시기

1 2 3 4 , 업종구성의 순위

造的 跛行性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解放後 韓國產業의 前提가 됨은 물론이다.

이같은 產業構造는 工業構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던가? 대체로 合併以前의 工業을 農村手工業의 保續時代라고 본다면 韓半島의 工業은 1910년 이후 점차적으로 工場工業에 전환되는데, 당시에 展開된 工業은 食品·섬유·皮革·고무工業이 주가 되고, 이어서 產米增產計劃이 실시된 1920년 부터는 精米·釀造業을 주로 하는 中小工業의 亂立時代가 전개된다. 적어도 統治 20년이 지난 1930년까지는 業種構造에 점차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나 生産額의 業種 順位가 대체로 ① 食品, ② 其他工業, ③ 紡織工業, ④ 化學工業의 順으로 一貫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長期間에 걸쳐서 본질적인 變革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構造는 1931년以後 化學·金屬·機械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軍需工業 體制로 改編되면서 高度 成長時代를 맞게 되는데, 1931년을 急遷時點으로 하는 그 이전에는 年平均 7.6%, 그 이후에 있어서는 14.1%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高度成長을 主導한 이들 重化學部門의 대부분이 日本 內 獨占企業의 分工場이며 韓半島 內에서는 何等의 關聯·下請이 없이 고립적으로 存立했을 뿐 아니라 全體적으로 보면 經營規模의 二重構造를 결과하게 되었다. 즉, 多大數의 韓國人 零細工場은 極少의 生産을 擔當했음에 반해서 極少의 日

本人 大工場이 生産額의 거의 전부를 擔當하였던 것이다. 이것 또한 解放後 우리 工業에 깊숙히 미친 構造的 跛行性인 것이다.

한편,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經濟關係의 變遷이나 이에 따른 產業構造의 變遷에 대한 工業各部門의 感應狀態는 몇가지 類型으로 나뉘어진다. ① 家內手工業 部門이 주가 된 其他工業은 처음부터 '繼續的 沒落型'으로 특징지어지고, ② 食品業은 1920년부터 急成長이 시작되어 1930년에 피이크에 이르다가 그 후에는 相對的 鈍化現象을 보이는 'convex型', ③ 化學·機械·金屬工業은 대체로 1930년 이후 急成長을 보이는 'concave型'으로 判別된다. 단 急成長의 時點은 化學工業이 1920년 이후, 機械工業이 1925년 이후, 金屬工業이 1935년 이후로서 각각 時間的 遲速이 확인된다. ④ 紡織工業은 일찍부터 重要한 地位에 있었으나, 항시 工業 전체의 成長을 下廻하는 '緩慢性 低成長型'으로 類別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關係를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것이 表 12이다.

筆者는 이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工業構造의 變化가 空間上에 投影되는 모습을 章을 달리해서 ① meso-region에 있어서 立地變動, ② micro-region에 있어서 立地擴散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A Study on the Localization Processe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1910~1945

—Methodology and Colonial Industrialization—

Kie Joo Hyung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natur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from 1910 to 1945 in terms of regional differences of its growth, and to attempt a model building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diffusion proc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ere the author publishe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cluding such contents as the time-space dimension in location studies and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1) We should not limit our locational analyses to the problems of locational choice or decision: that is, to one cross-section of time only. Rather we should discuss the locational factors of a given region in terms of a continuous time dimension. This involves not only the study of dynamic locational structure, but also the purposeful approach in geographical studies.

(2)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under the Japanese rule were evolved under the direction of Japanese capitalistic situation and of their colonial policy towards Korea, and economic historians usually divided the period of the rule into three characteristic stages. As far as the locational change of manufacturing in colonial Korea

is concerned, the stages of growth should be divided into two phases, after and before periods of 1930. Especially such industrial categories as chemical, engineering and metal including mining sectors began to show a remarkably rapid growth in the early 1930's.

(3) The categories of manufacturing, however, developed without regard to the other industrial sections and to the manufacturing systems ready-made in Korea. It is nothing but a migration of branch plants under the banner of the monopolistic enterprises in Japan

4) The growth patterns by manufacturing category are classified as follows: a) continuous declining type such as domestic handicrafts, b) convex type including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c) concave type including chemical, met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which showed a rapid growth after 1930 and d) continuous low growth type such as textile industry.

(5) After the early 1930's,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as high, but its regional structure or allocation was much too undesirable for Koreans to attain self-reliance. To conclude, this situation has been a fundamental factor, reflecting upon the present day location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